<연구논문>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2002) : 83~111 한국인구학회

세대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이상림* · 김두섭**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이 세대간 지원관계와 자신의 노후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관계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환이론적 접근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한다. 이 연구는 전국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수집한 김두섭 외(20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거나 상호적 관계에 있는 중년층에서 전통적 노부모 부양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교환이론의 설명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들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 분석에서 효규범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이 단일세대에 한정되어지는 교환적 관계의 설명이 아니라, 효규범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녀의 지원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결적 보상체계라는 새로운 설명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년층 자신의 노후 부양관에 관한 분석에서는 세대관계 유형이나 자신의 노부모 부양관과 무관하게 절대 다수의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 중년층이 자신은 노부모 부양의 경험이 있고,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후에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못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틀을 제시하면서, 중년층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단어: 노부모 부양관, 세대관계, 노후 부양관, 연결적 보상체제, 교환이론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Ⅰ. 머리말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률과 사망률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되기 시작하여 인구변천과정에서의 모든 단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섭, 1993).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약 19년 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1).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일본의 경험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두섭, 2001). 이렇게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

고령사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노인 부양과 관련한 사회복지 대책의 마련이다. 고령화는 사회적으로는 노동 시장에서 은퇴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생애과정 중 노인기가 확장됨에 따라 자신의 피부양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Cho & Lee, 2000).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노인부양, 노인의료복지 그리고 노후 소득보장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족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경로효친(敬老孝親)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중인 가족 구성과 역할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출산력이 저하하고 있으며, 핵가족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문화·규범의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효의식이 옅어지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가족주의의 영역을 대체하는 추세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이러한 변화들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

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부양과 연관된 가족 내 세대관계와 노후부양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인식과 향후 장기적인 대처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가족 내 세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세대 구성원간의 관계, 각 세대 구성원들의 가치 및 의식이나 행위 등에 주목한다. 그리고 교환이론을 우리 사회 세대관계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사회적 관계란 비용과 보상에 의한 교환적 관계로 정의된다. 그러한 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서구 사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미비하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부모의 부양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로 인식되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환이론으로 우리 사회의 노부모 부양 체계를 설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지닌다.

이 연구는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환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두섭 외(2000)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에 따라 노부모와 중년자녀 사이의 세대간 지원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다시 중년층이 경험하는 세대관계가 자신의 노후부양에 관한 가치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

1. 교환이론의 적용

노인 및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들 중에서 가족 내 세대관계에 대한 설명은 미시적 논의로 분류되어진다. 그리고 교환이론적 관점은 세대간 지원과 보상의 가족 구조와 같은 미시적 수준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성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Bengtson, Burgess, and Parrott, 1997: S78). 교환이론은 심리학적 행동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

학, 인류학,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및 갈등이론 등 여러 사조들이 결합되어 탄생되었으며 호만스(1961)와 블라우(Blau, 1964)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Ritzer, 1983).

인간의 경제적인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행위자간의 지원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기본적 전제는 상호작용의 모든 행위 당사자는 사회적 보상(benefit)을 증가시키고 비용손실(cost)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관계의 양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계속되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되지만, 반대로 지원과 수혜 관계의 호혜관계의 균형이 깨질 때에는 상호간의 관계 역시 단절된다는 것이다(Hendrick, 1995).

교환이론의 논의는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호만스(Homans)로 대표되는 스펜서의 개인주의적(Spencerian individualistic)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로 대표되는 뒤르카임의 집합주의적 전통이다. 전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며 개인의 자발적인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집합적인 강제나 문화적 영향을 중시한다(박종우, 2000). 교환이론에서 말하는 교환 자원 역시 전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물질적 가시적 이해(利害)에 중점을 두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와 같은 비가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 역시 확장된 교환의 내용으로 파악한다.[1)]

이러한 교환이론적 시각이 노인문제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다우드(Dowd, 1975)에 의해서이다. 그는 노년층과 중년층의 상호관계를 중년층과 청년층과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노년층이 교환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적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

1) 그러나 확장된 교환이론은 그 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론(theory)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Hogan, Eggebeen, and Clogg, 1993). 이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의 범위를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교환이론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교환이론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매우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환이론적 시각을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에 적용하려는 기존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교환이론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에는 주로 세대간 사회적 경제적 교환, 지원과 수혜의 교환구조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환방식 등의 분석에서 교환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Dowd, 1975; Hogan, Eggebeen, and Clogg, 1993).

교환이론의 시각은 우리 사회의 노인관련 연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재홍(1991)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교환이론의 접목을 이론적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근대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들이 기존에 가치를 인정받던 자원들 다시 말해, 재산소유권, 경험과 지식 등의 상실과 가치저하가 노인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을 포함한 가족 내 세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교환이론이 사용되고 있다. 조병은과 신화용(1992)은 맞벌이 성인자녀와 노모 동거에 관하여 노모가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이 아닌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교환자의 입장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인자녀와 노모와의 부양과 보상의 관계를 통해서 세대관계의 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명자 외(1996)의 연구에서는 신세대 부부와 중년부부의 보상감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신세대 주부의 경우 자녀들을 돌보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노부모 부양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기원(2001)은 별거 상태에 있는 노부모와 중년자녀와의 세대관계를 정서적 지원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교환이론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잠재적인 보상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가 그렇지 못한 노부모들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을 자녀들로부터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환이론의 설명이 우리 사회의 노부모와 중년자녀 사이의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교환이론의 시각을 세대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노부모 부양에 따르는 비용과 보상의 개념을 부담감과 보상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담감이란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의 부족, 육체적 어려움, 긴장감,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상감이란 부양에 의한 관계의 증진, 노부모부터의 육아와 가사의 도움, 자식의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만족감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모를 잘 모신다는

인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 될 수 있다.

2. 교환이론적 시각에서의 효의식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교환이론의 적용이 현상적,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효규범에 관한 논의는 사회의 문화적,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강조되어진 효 이념은 가족의 권위적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부양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효 이념 및 그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관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규범으로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장경섭, 1994). 따라서 우리의 가족관계와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세대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도 효 규범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바라보는 교환이론적 시각에서는 노부모 부양의 이유를 보답과 보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나 효의식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장기간 도움을 받아왔다는 지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Cicerelli, 1989; Stoller and Pugliesi, 1989). 그리고 Finley(1988)은 친정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부양에 대한 보상과 대가 그리고 지원관계의 호혜성의 정도가 부모 부양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찾을 수 있다. 조병은과 신화용(1992)은 노모로부터 많은 보상을 느낄 때, 자신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노모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노모에 대한 효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명자와 안선영(1996)도 신세대 부부와 중년부부 모두에게 부양 보상감이 효도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부모로부터 수혜와 보상을 많이 받는 자녀에게서 부모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곧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관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이론적 시각을 우리 사회 노인 및 세대관계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들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교환이론

이 우리 사회와는 여건이 다른 미국 등 서구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빠른 산업화 과정을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는 계층분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물질적 자원을 보유한 노인들이 존재한다(Pampel, 1998).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노인부양에 대하여 우리의 효의식과 같은 특별한 강제적 규범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는 노인부양 등의 세대관계의 문제를 이해 득실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노부모의 부양을 의무로 여기는 효규범은 아직도 중요한 규범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서구의 상황에서는 노인의 부양이 선택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의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대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단편적인 지원과 보상의 현상들만을 다루고 있다. 세대간의 교류 정도, 도움의 양이나, 만족감과 스트레스 등의 미시적 수준의 변인만으로는 사회적 수준의 노인부양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노인문제 및 세대관계에서 교환이론의 적용은 노인문제의 원인 설명과 같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나, 또는 자녀들의 노인 부양에 따른 부양비용이나 스트레스와 만족감과 같은 아주 미시적인 세대관계 현상 분석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부모부양 현실에 교환이론의 시각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환이론의 적용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의 효규범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유형화를 통한 세대관계 접근

세대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그 이면의 심층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김두섭 외, 2000). 세대관계를 특정한 요인들로 범주화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복잡한 세대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많은 유용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실버스타인과 벵슨(Silverstein and Bengtson, 1997)은 미국 사회의 세대관계를 세대간 연대를 통하여 밀착형(tight-Knit), 친목형(sociable), 원교형(intimate but distant), 의무형(obligatory), 그리고 분리형(detached)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구성을 알아보았다. 김정석과 김익기(2000)는 노부모와 중년자녀 사이의 지원 교환의 형태를 노부모의 측면에서 수급형, 무교환형 그리고 쌍방형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적인 교환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섭 외(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자녀와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근접성, 지원기능 및 노부모 부양관에 따라 동거/규범형, 동거/기능형, 별거/호혜형, 별거/비호혜형 그리고 무교환형의 다섯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을 통하여 각 유형이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태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대관계의 형태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희망과 실제 노후준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도 위의 분석방법들을 참고하여 세대관계를 지원의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화하여 세대간 지원 형태가 중년층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4. 연구가설

교환이론의 시각에서는 부모부양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효의식은 세대관계에서 얻는 보상에 대한 만족이나 앞으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기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지원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수혜의 경향이 강한 세대관계를 경험하는 중년층에서 노부모부양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전통적 효규범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며 노부모의 부양이 자녀의 책임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교환이론의 설명에서처럼 교환관계를 통한 보상에 의해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중년층이 수용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적 규범이 세대관계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반대로 노부모와의 세대관계에서 지원의 경향이 강한 중년층에게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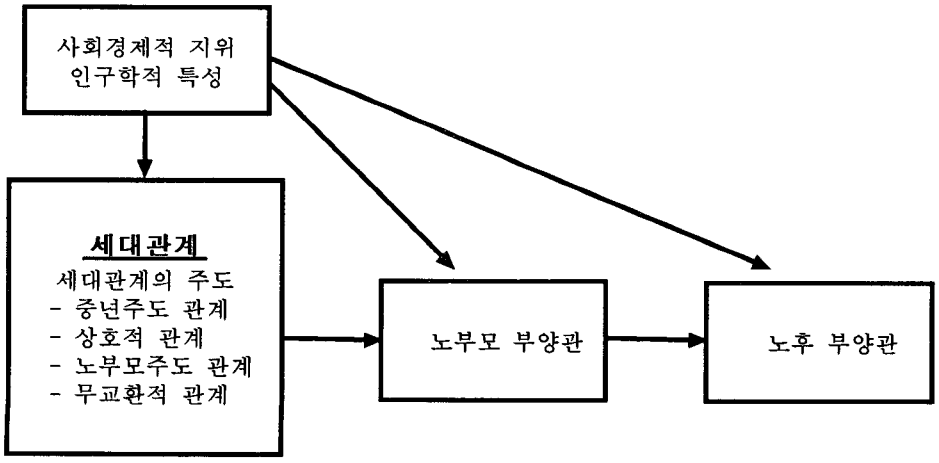
그리고 노부모부양관과 노부모부양은 문화규범의 수용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년층이 그리는 자신의 노후의 모습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규범을 강하게 수용할수록 그리고 노부모에 대해서 지원적 관계에 있을수록 자신의 노후부양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식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노부모와의 세대관계에 대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갖는 중년층의 경우에는 지원적 관계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2.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지원적 관계에 있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부양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부모와 중년층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수용 가치관에 대한 인과관계의 연구모델



Ⅲ. 변수 및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1) 노부모부양관

부모 부양에 대한 중년층의 가치규범은 전통적 가치관과 비전통적 가치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부모 부양에 있어서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양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전통적 가치관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런 네가지 변수값이 전통적 가치관과 비전통적 가치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의 세가지 응답은 지원의 규범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대관계의 유형

이 연구에서는 권력(주도성)을 세대관계의 특징적 성격으로 정하고자 한다. 세대간 지원은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김태현, 1981; 김정석 · 김익기, 2000; 김두섭 외, 2000). 이는 다시 중년자녀의 지원과 노부모의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하위 범주에서 지원의 유무를 비교하여 중년 주도형, 노부모 주도형, 상호적 관계형 그리고 무교환적 관계형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들 하위범주들을 종합하여 같은 네 가지 범주로 전체 세대관계의 세대간 지원의 주도성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도구적 지원에서 중년자녀는 지원이 있는 편이고, 노부모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년 주도형'이 된다. 한편 양쪽 모두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적 관계'가, 반대로 모두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무교환적 관계'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세가지 하위 범주의 지원관계를 종합한 전체 세대관계의 구성은 전체 '중년 주도형'와 '노부모 주도'는 세가지 하위범주 중 어느 한쪽의 지원이 더 많이 있을 경우이고, '상호적 관계'는 두가지 범주 이상에서 쌍

방 모두가 지원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와 어떠한 한 범주에서는 중년 주도형이, 다른 한 범주에서는 노부모 주도형이 나타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무교환적 관계는 각 하위 범주에서 무교환적 관계가 두가지 이상의 하위범주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3) 노후부양관

위의 노부모부양관은 사회의 일반적 규범의 수용으로 볼 수 있는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이다. 노후부양관은 자신의 노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 장남, 자녀 그리고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후부양관이 미래의 자신의 부양에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는 김두섭 외(2000)의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1999년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만 40-59세의 중년층 가장과 배우자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실제 조사에서는 일대일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표집방법은 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으로 이루어졌다. 표집단계에서 성별(남자 50%, 여자 50%), 연령구성별(40대 40%, 50대 60%), 노부모 생존여부별(생존비율이 50% 이상)로 할당하였다. 또한 응답자는 자녀가 있는 실질적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국한하였으며,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을 중복 표집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의 1,200명 중에서 노부모가 생존해 있는 668명을 추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 독립변수와 주 종속변수는 모두 서열화 되지 않은 명목척도이다. 따라서 분석작업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종속 변수를 도입할 수 있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할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1수 및 범주	사례수	비율(%)
성 별		
남성	354	53.0
여성	314	47.0
연 령		
40대	367	54.9
50대	301	45.1
거주지		
도시지역	521	78.0
읍면단위	147	22.0
형제자매수		
0 - 1명	12	1.8
2 - 3명	101	15.1
4 - 5명	269	40.3
6 - 7명	215	32.2
8 - 10명	59	8.8
11 - 12명	12	1.7
형제순위		
장 남	345	51.6
차남이하	323	48.4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148	22.2
별 거	520	77.8
노부모의 혼인상태		
유배우	197	29.5
무배우	471	70.5
노부모의 거주지		
도시지역	409	61.2
읍면단위	259	38.8

주: 여성의 경우, 남편과 시부모의 특성별 분포(형제수, 형제순위, 동거여부, 노부모 혼인상태, 노부모 거주지).

<표 2> 세대간 지원관계의 유형별 구성

변수 및 범주		사례수	비율(%)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			
	전통적 가치관	265	39.7
	비전통적 가치관	403	60.3
도구적 지원관계			
	중년 주도형	183	27.4
	상호적 관계형	92	13.8
	노부모 주도형	35	5.2
	무교환적 관계형	358	53.6
경제적 지원관계			
	중년 주도형	363	54.3
	상호적 관계형	82	12.3
	노부모 주도형	52	7.8
	무교환적 관계형	171	25.6
정서적 지원관계			
	중년 주도형	164	24.6
	상호적 관계형	236	35.3
	노부모 주도형	32	4.8
	무교환적 관계형	236	35.4
세대간 지원관계 (전체)			
	중년 주도형	409	61.2
	상호적 관계형	66	9.9
	노부모 주도형	99	14.8
	무교환적 관계형	94	14.1
중년층 자신에 대한 노후부양 책임			
	자 신	572	85.6
	장 남	28	4.2
	모든자녀	49	7.3
	사회/국가	19	2.8

분석 대상 중년층은 남성이 53.0%, 여성이 47.0%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47.5세 이었다. 남편의 형제자매 수는 평균 5.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자료에서는 장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노부모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의 노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9.5%, 사별 및 이혼 등으로 인한 무배우자의 비율은 70.5%로 나타났다. 노부모와 응답자가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은 22.2%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77.8%이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이 38.8%로 중년층의 22.0%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고령화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한

편 이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한 변수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세대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하위 영역 대부분에서 중년주도의 관계와 무교환적 관계가 높게 나타나지만, 하위영역 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대관계의 유형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일, 병간호, 육아 등 육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는 무교환적 관계가 53.6%로 두 번째로 높은 중년주도적 관계의 27.4%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서 직접 만나 육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구적 지원은 동거, 근접성 그리고 노부모의 건강상태 등 다른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주택자금이나 용돈을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원에서는 중년층 주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년주도의 관계가 54.3%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무교환적 관계는 25.6%로 다른 영역의 지원관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에서 경제적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상황에서 자식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노부모부양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집안 일 조언이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원에서는 상호적 관계와 무교환적 관계가 비슷한 수준(35.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년주도적 관계의 비율이 24.6%로 다른 지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는 중년 자녀에게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의 지원을 반영하는 노부모주도의 지원유형과 상호적 관계형의 비율을 합해본다면 그 비율이 다른 지원유형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 하위단위의 세대관계에서 나타난 지원의 주도성을 종합한 전체적인 세대관계에서는 하위 지원관계에서 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율(61.2%)로 중년층이 제공하는 지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위 영역의 세대간 지원 관계에서 중년층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이는 다시 노부모의 생활이 여러모로 자녀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무교환형은 그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어느 한 영역에서 세대간의 지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지원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세대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비율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리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 많은 부분 가족(자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중년층이 갖는 부양과 관련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노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태도를 보인 중년층은 39.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효의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효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전통적 노부모 부양관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대 다수(85.6%)의 응답자가 자녀가 아닌 자신에게 노후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중년층은 자신이 수용하는 효 규범을 실제 자신의 노후에까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대관계에 따른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과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세대관계를 단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후부양	상호적 관계	중년 주도적	노부모주도적	무교환적 관계	계
전통적	46(17.4)	174(65.7)	25 (9.4)	20 (7.5)	265(100.0)
비전통적	53(13.2)	235(58.3)	41(10.2)	74(18.4)	403(100.0)
계	99(14.8)	409(61.2)	66 (9.9)	94(14.1)	668(100.0)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중년층의 경우에는 중년주도적 관계와 상호적 관계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년층들은 무교환적 관계와 노부모주도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음

을 감안할 때, 중년층이 노부모 부양에 관한 부정적 태도가 노부모 부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부양관과 세대관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에서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나타나는 회귀계수의 값은 설정된 기준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범주 내 상대적 사건발생확률 비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사건발생확률이 독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노부모부양관은 '비전통적 가치관'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세대관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기준변수로 '무교환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R^2값과 모델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x^2값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관이 세대관계의 지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는 중년층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세대관계인 중년층 주도의 세대관계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적 관계보다는 중년층주도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환이론의 시각에 따르자면 세대간의 교환관계 속에서 지원보다는 수혜나 보상의 경향이 강할수록 중년층은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노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노부모주도의 관계에 속한 중년층이 부모부양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혜보다는 일방적 지원의 측면이 강한 중년주도의 관계에 속한 중년자녀들은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영향력이 강한 우리사회의 효의식과 노부모 부양이 의무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교환이론의 설명에서처럼 세대관계에서 얻어지는 수혜와 보상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 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는 부모부양에 관한 가치규범이 노부모 부양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에 대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년주도 b (s.e.)	상호적관계 b (s.e.)	노부모주도 b (s.e.)
노부모부양관			
전통적 가치관	.791*** (.287)	.778** (.344)	.582 (.377)
(비전통적 가치관 기준)			
성별			
남 성	.187 (.248)	.237 (.313)	.613 (.349)
(여성 기준)			
연령			
40 대	.100 (.249)	.432 (.322)	.416 (.353)
(50대 기준)			
중년자녀의 거주지			
도 시	.074 (.308)	-.657* (.367)	.263 (.508)
(읍/면 기준)			
사회경제적지위	.336*** (.082)	.321*** (.109)	.390*** (.175)
(연속변수)			
중년자녀의 형제수	.040 (.066)	-.054 (.085)	.073 (.094)
(연속변수)			
중년자녀의 형제 순위			
장 남	.060 (.255)	.368 (.329)	.263 (.356)
(비장남 기준)			
동거여부			
동 거	2.203*** (.615)	2.712*** (.650)	2.279*** (.694)
(별거 기준)			
노부모의 혼인상태			
사별/이혼	.071 (.277)	-.569* (.340)	-.777** (.361)
(유배우 기준)			
상 수	-1.941** (.830)	-2.327** (1.086)	-4.436 (1.236)
R^2		.170	
x^2		108.831***	
사 례 수		668	

주: 1) * p<.1, ** p<.05, *** p<.01
2) 종속변수의 기준변수는 무교환적 관계.

<표 4>에서는 노부모부양관 외의 다른 통제변수들이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몇 가지 주목할만한 결과가 드러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층은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중년층에 비해 상호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사일이나 경제 활동에서 노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관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회귀값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기준변수가 무교환적 관계이었음을 고려하면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무교환적 세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자녀의 자원의 부재가 세대간 지원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적 관계가 많이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함께 살 경우 노부모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년 자녀가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노부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지원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외의 연령이나, 남편의 장남 여부 그리고 노부모의 혼인상태 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원의 보유 역시 노부모 부양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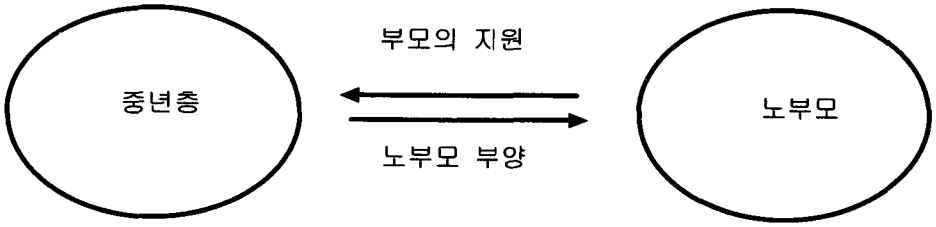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중년층이 전통적 가치를 수용한 중년층일수록 세대관계에서 지원적 관계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과 관련된 세대관계의 형성이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노인부양체계를 설명하는 데에 교환이론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효규범이 노인부양의 전반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상황이 서구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환이론의 설명이 매우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함께 지적할 수 있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세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세대에 한정된 세대관계의 단면적인 지원 현상을 다루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 전반의 원리를 규명하려 하거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인부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교환이론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이론의 설명에서는 다루지 못한 우리 사회의 효 규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체계를 구성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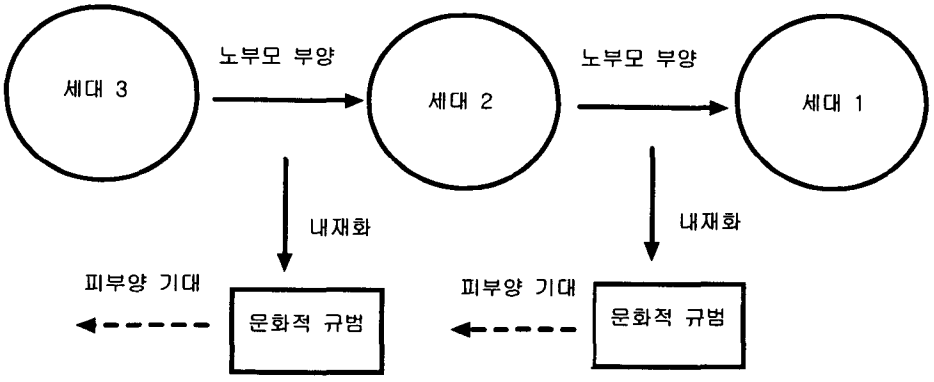
앞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의 수혜나 보상이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방적인 도움을 제

공하는 중년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즉 중년층의 부모부양이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중년층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효규범을 더욱 강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전통을 지닌 효 규범이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원리로 지속되어 온 우리의 역사 사회적 현실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오랜 동안 안정되게 이어내려 왔다. 따라서 자신이 노부모의 세대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녀들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대관계의 지원과 수혜의 관계가 단(單)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 세대관계 형성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부모 부양 시스템을 '연결적 보상체계'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림 2> 교환이론에서의 세대간 지원의 흐름



<그림 3> 연결적 보상체계에서의 세대간 지원의 흐름



연결적 보상체계에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규범은 우리사회의 전통적 노

인부양 구조를 유지시켜 왔다. 노부모부양을 의무화하는 효규범은 자녀들로 하여금 노부모를 부양하게 만들었으며, 한편 이러한 규범을 수행한 중년자녀는 자신의 사회적 의무수행의 경험을 통하여 노부모 부양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편입시키게 된다. 이러한 중년층의 효규범의 내재화는 다시 자신의 자녀 세대에 대한 규범 수행이라는 다음 세대에 관한 기대로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지원)은 자신의 노부모에게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세대를 걸친 연속적 부모부양은 효규범을 통하여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노부모 부양 체계는 일차적 세대관계를 넘어선 다음 세대까지 포함한 노인부양의 연속적 재생산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교환이론의 설명과 대비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중년층 자신에 대한 노후부양관

앞서의 분석에서 중년층이 수용하는 노부모부양에 관한 가치규범이 세대간 지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위에서 도출한 우리 사회의 '연결적 보상체계'이라는 설명틀로 현재의 중년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고자 노부모 부양관이나 세대간의 지원 형태에 따라 자신에 대한 노후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부모 부양관이란 이념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일반적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전통적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거나 노부모에 대하여 지원적 관계에 있는 중년층은 비슷한 수준에서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단순 비교의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의 높은 수치로 자신의 노후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들의 자신의 노후관이 실제 자신의 노후에 그렇게 반영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중년층은 자신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탁하기가 어려워질 것을 이미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노부모 부양관에 따른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 (단위 : %)

	자신	장남	모든자녀	사회/국가	계
전통적 가치관	234	13	13	5	265
	(88.3)	(4.9)	(4.9)	(1.9)	(100.0)
비전통적 가치관	338	15	36	14	403
	(83.3)	(3.7)	(8.9)	(3.5)	(100.0)
계	572	28	49	19	668
	(85.6)	(4.2)	(7.3)	(2.8)	(100.0)

<표 6> 노부모와의 세대관계에 따른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 (단위 : %)

	자신	장남	모든 자녀	사회/국가	계
중년주도적 관계	354	14	28	13	409
	(86.6)	(3.4)	(6.8)	(3.2)	(100.0)
상호적 관계	84	6	8	1	99
	(84.0)	(6.1)	(8.1)	(1.0)	(100.0)
노부모 주도적 관계	60	2	1	3	66
	(90.9)	(3.0)	(1.5)	(4.5)	(100.0)
무교환적 관계	74	6	12	2	94
	(78.7)	(6.4)	(12.8)	(2.1)	(100.0)
계	572	28	49	19	668
	(85.6)	(4.2)	(7.3)	(2.5)	(100.0)

자신의 노후부양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의 기준변수로 자신에게 노후의 책임있다고 응답한 집단을 설정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분석모형의 R^2값은 0.17로 나타났으며, x^2값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표 7>에 제시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사례수의 단순비교에서 이루어진 위의 설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자신의 노후의 책임이 국가나 사회에 응답한 경우는 그 사례수가 매우 작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관계의 유형이나 노부모 부양관이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노부모 부양관이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계적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회귀값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 결과는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중년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에 그친다. 이렇듯 노후 부양관이나 세대관계의 유형 대부분이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이 수용하는 규범이나 세대관계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절대다수의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비중의 중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적 관계를 경험하고, 의식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앞으로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대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남 b (s.e.)	자녀 b (s.e.)	국가 / 사회 b (s.e.)
노부모부양관			
전통적 가치관	.343 (.433)	-.769** (.354)	-1.021* (.565)
(비전통적 가치관 기준)			
세대관계			
상호적관계	.489 (.526)	.006 (.434)	-1.496 (1.062)
노부모주도적	.429 (.547)	.505 (.386)	-.884 (.821)
무교환적관계	.215 (.793)	-1.453 (1.033	.642 (.698)
(중년주도적 관계 기준)			
사회경제적지위			
(연속변수)	-.445*** (.135)	-.113 (.107)	-.469*** (.175)
성별			
남 성	-.741* (.427)	-.162 (.310)	-.410 (.504)
(여성 기준)			
연령			
40 대	-.867** (.430)	-.594* (.310)	.239 (.507)
(50대 기준)			
중년자녀의 거주지			
도시	-.653 (.431)	-.961*** (.339)	-1.880*** (.508)
(읍/면 기준)			
상 수	.974 (.941)	-.317 (.806)	1.640 (1.195)
R^2		.169	
x^2		80.815***	
사 례 수		668	

주: 1) * p<.1, ** p<.05, *** p<.01
2) 종속변수의 기준변수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

<표 7>에서 노후부양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서구적·비전통적 가치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결과들이 자신에게 노후책임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지에서는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연령에서는 50대보다는 40대가 스스로에게 자신의 노후 책임을 묻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다. 노부모부양관이라는 가치규범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과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후부양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노후를 장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분석에서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무교환적 세대관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다. 경제적 요건들이 세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듯이, 노후부양에 대한 태도도 가치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과 같은 현실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영향력 분석결과에서도 뒷받침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노후부양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노부모부양에서 남성보다 비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부모 부양관에서는 남성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노후부양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후부양관에서는 경제력 등 현실적인 요소들이 가치규범적 요인들보다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의 분석에서 도출한 '연결적 보상체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중년층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효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온 노부모에 대한 의무적 부양 메커니즘이 현재의 중년층에 이르러서는 단

절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의 우리 사회 중년층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수행하였으나 자녀로부터의 피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주변인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결성의 단절은 지금의 중년층이 노인이 되는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부양 문제가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노후를 실제로 준비하기 어려운 하위 계층의 중년층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족 및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노인부양을 유지하였던 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족들은 오히려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전국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표집한 설문자료를 통하여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의 세대간 지원관계와 중년층이 수용하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교환이론적 시각에 의지하여 우리 사회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의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교환이론이 설명하는 교환관계에 의한 노부모 부양과는 다른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노부모 부양 및 지원 구조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세대관계와 노부모 부양관에 관한 분석에서는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달리 지원적 세대관계에 있는 중년층에서 오히려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관계를 개인간의 교환관계로 파악하려는 교환이론의 설명을 노부모 부양을 의무시하는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單)세대 간의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교환이론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효 규범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 노부모 부양이 이루어지는 연결적 보상체계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의 노부모 부

양구조를 설명하였다.

노부모 부양관이나 세대관계의 경험이 자신의 노후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절대다수의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노부모 부양관을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효규범과 가족구조의 빠른 변화를 보여주며, 연결적 보상체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금의 중년층들이 노부모에 대한 지원의 수행은 하고 있지만 자녀로부터 부양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효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노인의 부양의 자녀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교환이론적 시각으로 우리의 사회의 노부모 부양체계를 설명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기존 교환이론적 시각에서 시도된 연구들과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효의식이나 노인의 열악한 상황 등의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환이론적 시각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세대관계의 일부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전반적인 부양체계 등 중간 수준(미시-거시)의 논의에서는 그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우리사회의 세대관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효규범을 반영하여 연결적 보상체계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시적인 세대관계 일부분의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노부모부양 시스템의 수준에서 교환이론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려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자신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였으나 자식으로부터의 피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중년층의 중간자적 위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천적인 측면에서 향후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차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고 가족에 더욱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문제의 계층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세대관계에서 지원의 주도성을 측정하는 데에 더욱 정교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세대간 지원관계를 종합하고 각각의 지원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들도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관계가 노부모와 중년층 쌍방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부모와 중년층을 동시에 대칭적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의 설계초기에서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로 한정된 세대관계 접근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연령제한, 여성의 경제참여, 자녀의 양육 여건, 사회복지의 수혜, 지역/사회적 문화양식 등 무수히 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가족 안팎의 여러 요인에 대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세대관계의 양상을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복 (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복지재단.

권태환 · 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태환 · 박영진 (1995), "가족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 · 김태헌 · 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김두섭 (2001),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 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김두섭 · 박경숙 · 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6-89.

김명자 · 안선영 (1996),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13-125.

김명자 · 안선영 · 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 14(2), 97-110.

김정석 ·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김태현 (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박종우 (2000), "노인과 자녀간의 권력관계: 미국이민 노인들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31-151.

박재홍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9(여름), 1-19.

은기수 (1996), "노인문제: 노령화와 노인들에 대한 이해," 한완상 · 권태환(편),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민음사.

_____ (2001), "한국 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271-332.

이신숙 · 서병숙 (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장경섭 (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부 모순," 《철학과 현실》 22, 51-67.

_____ (2001), "노년기의 건강,"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189-220.

정기원 (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조병은 · 신화용 (1992), "사회교환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조지 리처(Ritzer, G.) (1983), 《현대사회이론》, 최재현(역), 형설출판사.

통계청 (2001), 《장례인구추계》.

Bengtson, Vern L., Burgess, Elisabeth O. and Parrott Tonya M. (1997), "Theory, Explain, and a Third Generation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Social Gerontology," *Journal of Gerontology* 52B(2), S72-88.

Blau, P.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York: Wiley.

Cho Nam-Hoon, Lee Sam-Sik (2000), "Low Fertility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to Issue of Aging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145-168.

Dowd. J. (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Hareven, T.K. (ed.) (1996),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Life-Cource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wYork: Aldine de Gruyter.

Hendricks, J. (1995), "Exchange Theory in Aging," In G. Maddox(ed.), *The Encyclopedia of Aging*(2nd ed.), NewYork: Springer.

Homans, G.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ampel, F.C. (2000), 《노년불평등과 사회복지정책》, 김정석 · 김영순(역), 나눔의 집.

Silverstein, Merril and Vern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420-460.

abstract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lationship on the Attitudes of the Middle Aged on Old-Age Security

Sang Lim Lee · Doo-Sub Kim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s on old-age security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est is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attitudes on old parents' security on their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lationship and on their own old-age security as well. This study also attempt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social exchange perspective to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relationship in Korea. The social exchange perspective consider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s an exchange of aids and rewards between generations. However due to strong norm of filial duty and inadequate welfare system, supporting old parents is regarded as younger generation's duty in Korea. This study utilizes a survey data conducted by Kim et al.(2000).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ddle aged who gives one-sided supports to their parents tends to have the traditional attitude on old parents' security. It implies that intergenerational support relationship in Korea is not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s from the social exchange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a 'chained reward system' as an alternative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Seco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middle aged tend to think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old-age security regardless of the pattern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relationship and attitudes on old parents' security. It implies that the middle aged in Korea holds the status of 'marginal men' who supports their parents but can't take the similar supports from their children.

Key Words: old parents' securit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ld-age security, chained reward system, social exchange theory